



韓國의 크리스마스 썰 夜話 10

- 문창모 박사의 집념으로 이루어진 썰 -

(1949년도 發行分)

이 창 성/크리스마스 썰 동호인, 수집가

1. 문박사의 고민과 집념

우리나라에서 1932년에 크리스마스 썰이 처음 발행될 당시 크리스마스 썰 발행 7인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일 하였으며 대한결핵협회가 1953년 11월 6일에 창립 되었을 때에 초대 이사장으로 지내신 문창모 박사는 해방이된 어려움 속에서도 Dr. 서우드 홀의 유지를 받들어 크리스마스 썰의 발행을 기도하여 동분서주 하였으나 여의치 못한 결과를 갖고 왔으며 이렇다할 성과도 없이 국토는 38도선의 경계로 분단된 채 혼란의 와중에서 4년이라는 세월이 허송되고 말았다.

1945년 이후 크리스마스 썰의 재 발행을 위하여 이것 저것 시도하였으나 1947-48년에 국립마산결핵요양소 소장으로서 재임중 결핵에 대한 현상을 직접 피부로 느꼈으며 1949년 4월에 세브란스 병원장으로 임명되고 나서 크리스마스 썰은 기필코 발행하여야겠다는 결심을 굳건히 하였으나 해방 직후의 어려움 속에서 동분서주의 보람도 없이 하는 일이 모두가 불발에 그치는 것이 안타까울 뿐 이였지만 무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크리스마스 썰을 발행하기 위한 동지를 모았으나 얻

을 수 없어 단독으로 썰의 발행을 결행하였다.

썰의 발행 목적은 결핵 박멸의 기금을 모금 하는 것이 주 목적 이겠으나 오로지 썰의 재 발행에만 전력투구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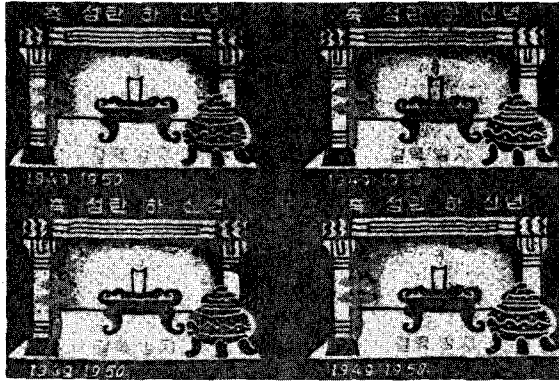
2 문창모 박사의 약력

1931년에 세브란스 의전을 졸업하여 바로 황해도 해주구세요양원에서 Dr. Sherwood Hall 박사와 같이 일하게 되었으며 해방 후에는 마산결핵요양소 소장, 세브란스 병원장을 역임하였고 말년에 이르러 강원도 원주에서 이비인후과 의원을 경영하고 있으며 Rotary Club의 임원을 하고 있으며 지방의 자선사업에도 관여 하고 있다.

3. 도안

소 뒷걸음 치다가 쥐 잡는 경우의 도안이 되었음

1940년 Dr. Sherwood Hall의 마지막 썰도 주위가 농청색으로 매우 어두운 인상을 받았으나 1949년의 썰은 주위가 흑색으로 되었으니 썰로서는 매우 희귀한 색



크리스마스 썰
도안

도를 사용 하였다고 하는 것은 필자 혼자
자의 소감에 그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마치 불전에 바친 향료와 촛불이 연상
되는 것이지만 복잡자가 있는 까닭에 크
리스마스 썰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다.

도안의 뜻은 1940년부터 1949년까지
암흑 속에서 광명의 촛불을 비치면서 희
망의 미래를 축복하는 뜻을 나타냈으며
주위의 흑색은 지나왔던 암흑의 시대를
나타내고 있다고는 하나 도안자가 크리
스마스 썰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이와
같은 도안이 되었으니 매우 희귀한 배색
을 한 썰의 한 종류에 속할 것이다.

문창모 박사는 탁자위에 촛불이 있다
고 하나 탁자 아래든지 아니면 앞이 타
당한 듯 하며 탁자위에는 "축 성탄 하
신년"이라는 한글이 백색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인쇄되어 있다. 아래에는 오
른쪽으로 "결핵방지"라는 Slogan과 1949
-1950이라는 연도가 인쇄되어 있어 크
리스마스 썰이라는 것을 실감나게 하나
"흑색 썰"의 별명으로 유명한 썰이다.

서울 시내의 중등학교 미술 선생에게

도안 의뢰를 했던 것 까지는 알고 있으
나 이름이 미상인 것이 유감이다.

4. 인쇄소

서울 시내의 여러 인쇄소를 수소문 하
였으나 현재의 조선히otel 주위의 평판 인
쇄소에 의뢰 하였으며 뒷폴도 천공도 인
쇄소에 일임하여 하청 시켰다고만 알고
있으며 뒷폴은 시공되지 않았으며 천공
은 전차표와 같은 루 렛트(선공)로 실시
되어 있다.

5. 발행수 : 5만매

6. 매가 : 매당 10전

7. 시트 구성 : 10×9=90매, 40매는
매판인 수수료이고 50
매 분만이 수입금이
된다.

8. 판매실적

솔직히 말하면 전연 팔리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 이었다. 천신만고 끝에 발행
하였으나 크리스마스가 너무나 임박하였
고 포스터 등으로 선전도 전연 안되어
있었으니 팔리지 않은 것이 당연 하였으

주한 미군이
 상당량을 구입하여
 본국으로 보내어져 현재
 미국에서 역 수입되고 있다.
 전지는 비교적 입수가 용이하나
 환상의 썰이라고 하는 까닭에
 가격이 엄청난 것이
 이 썰의 특징이다.

이었다. 발행에 필요한 제 경비를 회수
 할 수 없어 문박사 개인의 호주머니에서
 지불이 되었으며 남은 썰은 어디로 간
 것인지 정확하지 않으나 주한 미군이 상
 당량을 구입하여 본국으로 보내어져 현
 재 미국에서 역 수입되고 있다.

전지는 비교적 입수가 용이하나 환상
 의 썰이라고 하는 까닭에 가격이 엄청난
 것이 이 썰의 특색이다.

9. 발행소

며, 또 하나의 크나큰 원인은 혼란기 이
 었으므로 크리스마스 카드를 발행하지
 않았으니 썰이 팔리지 않은 것이었고 또
 다른 점은 일반 대중에게 썰이 무엇인가
 하는 이해를 얻을 수 없었다. 또한 발행
 한 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대부분

썰은 개인이 발행할 수 없게 되어 있
 으므로 변중호 목사와 나와 두사람이 결
 핵환자에 대한 전도 및 계몽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복심자회가 발행한 것으로 되
 어 있으나 실제로는 문박사 개인이 발행
 한 것이다.

크리스마스 썰 시트구성 10×9=90매



10. 각종자료

구분	내용	비고
발행년도	1949년	
도안내용	탁자위의 촛불과 향료	
도안자	미상	
인면	35×24.5mm	
친공	선공 11	
쇄색	3도	
판식	석판	
전지구성	10×9=90매	4방 마진없음
판매가격	매당 10전	
BOOKLET	없음	
엽서	없음	
인쇄소	미상	

11. 참고문헌

- 1) Comet지 No. 63 1985. 8. 10 발행
- 2) Green World Seal Catalogue The Christina Seal And Charity Stamp Society by Henry Irwin
- 3) 원색 한국우표도감 (1991년판 우문관)
- 4) 대한결핵협회 20년사 (대한결핵협회 발행) 卞



새로나온 책



「까치밥」 「사랑의 썸표와 마침표」

우리시대의 진정한 문학지상주의자이며 대학교수로 재직중인 시인 황송문 님의 근간 두권을 소개한다.

부제가 "우리사랑위해 기꺼이 죽는 인생이게해요"로 시작되는 시집 "까치밥"과 "사랑의 썸표와 마침표"라는 제목의 에세이 집이다.

시리도록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를 작가 특유의 잔잔한 필체로 엮어가고 있는 이 두권의 책은 읽는이로 하여금 오욕에 찌든 이시대의 사람들을 정화시키는 매우 아름다운 글이라는 생각을 갖게한다.

너무도 순수하고 고운 이 글들 하나하나가 작가의 마음을 잘 나타내 줄 뿐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작가의 모습을 한눈에 읽을 수 있는 진솔된 표현 또한 잘 나타나 있다.

「까치밥」 보성판/신국판171면/값 2,800원

「사랑의 썸표와 마침표」 풀잎판/신국판 206면/값 3,300원